

이방인을 용납하십시오(1)

롬 15:7~16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싫은 사람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감싸 주어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삶이라고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도바울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못 본척하고 못 들은 척 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용서해주었다면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아 주어라. 거부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최근에 우리나라는 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돈을 과시했는지 모릅니다. 더 좋은 옷, 더 비싼 옷을 입고 품을 채고 다니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보다 못 입고 못 먹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14장에서 ‘형제를 받아들이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하라’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도덕과 윤리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은 당연한 세상윤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윤리에 기초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부했습니다. ‘구원은 우리만 받은 것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깨끗하지 못한 개와 같은 자들이다.’ 라며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도취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까닭은 그들을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기 위함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너무도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구원의 도구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심지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꺾어짐으로 인하여 이방인이 구원을 받도록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갈 수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말의 더 깊은 뜻은 이방인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하거나 핍박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이방인들도 사랑하노라.’ 이 두 그룹이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조상들과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은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약속도, 율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도 있고 메시아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나님도, 성막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가지고 너무도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은 그 축복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긍휼로 구원받은 이방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조상들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위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의 약속, 율법의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방인은 긍휼과 공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이방인에게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가족만 사랑해 달라’는 지나친 가족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도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들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랑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서로 받아 들여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겨라. 다른 사람 잘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환상 중에 보자기를 내려 부정한 짐승을 주고 ‘이것을 먹으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런 것은 우리의 전통에 의하면 더러워서 먹지 못합니다.’라며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면 드십시오. 자신이 이것을 더럽다 또는 그렇지 않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4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의 ‘열방’이라는 말은 이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 족속, 열방, 방언과 같은 말은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찬양을 받고 싶어하시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두번째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랍이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찬송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싫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에 가서 또 만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백인은 흑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한국민은 북한국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사이도 서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혼하게 됩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용납하고 약점을 사랑하고, 연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비판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용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당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당신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자기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날 기쁘게 해 달라.’ ‘내 말을 들으라.’ 등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화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는 11절에서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저를 찬송하라”

시편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주께 돌아와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 12절에서는 이사야 11장 10절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거부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포기한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줄 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들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메시아라는 키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말라기까지 흥분하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 모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와 에스더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두고 두고 온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소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자는 깊은 절망에서 헤어날 것이고 무서운 질병에서 치유될 것이며 모든 압제와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부활과 생명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은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기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을 바로 성령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자기 안에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의 채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는데 연료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채널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세례이고 성령의 기쁨부음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맹물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은 열을 가하면 펄펄 끓어서 수증기가 나고 그 수증기의 힘으로 기차가 움직이고 전기를 만들어 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차를 움직이고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물은 물인데 맹물에 불과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것이 에너지로 나오고 그것이 기도와 전도와 사랑과 영적인 능력으로 나오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예수님은 믿어야 하지만 성령세례는 성령님을 사모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지금 '성령님, 사모합니다.'라고 말해보십시오. 이 말 자체가 성령님이 여러분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금식하라는 말도, 십일조를 내라는 말도 없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령세례가 내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님의 채널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가시는 것을 성령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해야만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있어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출입구인 접촉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성령님이 내안에 오셔서 역사하게 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표시가 납니다. 바람이 불면 종이는 날아가고 나무

는 흔들리지만 담벼락은 그냥 제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에 시험들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담벼락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다 그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 보다 못한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사 성령세례가 나타나며
성령의 기름부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성령님을 체험했지만 지금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